

젊은 시절 사르트르의 내면세계

2차대전 발발 직후부터 쓴 미공개일기 출간



2차대전 직후부터 쓰기 시작한 사르트르의 미공개일기가 출간돼 새삼스런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사르트르의 미공개 일기가 최근 프랑스에서 출간돼 학계와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갈리마르 출판사가 내놓은 「사기(詐欺)전쟁으로부터의 노트들」(150쪽)이 젊은 시절 사르트르의 내면세계를 담고 있어 학문적으로 소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는 사르트르가 2차대전 발발 직후인 1939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쓴 글들이 수록돼 있다.

사르트르는 2차대전 기간동안 15권의 일기책을 쓴 것으로 알려진다. 지금까지 이중 3, 5, 11, 12, 14권만이 발견돼 1983년 양녀 아를레트 엘카임-사르트르에 의해 출간됐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6번째 일기책이다.

지난해 갈리마르 출판사가 사르트르의 새 일기책 출간계획을 발표했을 때, 파리의 지식인들은 차가운 반응을 나타냈었다. 이미 사르트르와 보바르의 자서전, 전기, 일기, 편지 등을 통해 너무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새로울 게 있겠냐는 것. 게다가 80년대말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과 함께 진보사상이 퇴조

하면서 사르트르에 대한 관심과 인기도 크게 떨어지는 추세였다.

그러나 막상 「사기전쟁…」이 선보이자 사정은 달라졌다. 이제까지 출간된 관련서적 중 사르트르의 가장 솔직한 목소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차대전의 본질에 대한 사르트르의 시각이 상당히 모호하고 유치한 수준이어서 앞으로 그의 전기적 연구 방향을 바꿔 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9월의 한 일기에서 사르트르는 “도대체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쓰고 있다. 이어서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 이전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당시 혼란만 있었을 뿐이다. 일치된 당파도 이데올로기도 없었고, 사회적 불일치만 만연해 있었다. 그렇다면 자본가들의 획책으로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지만 그들도 이 전쟁으로 얻는 것이 없다”고 적었다.

전쟁 초기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뿐이었

다. “전쟁으로 인해 내가 얻은 것은 생활의 불편, 부자유스런 저술활동, 그리고 파리의 파괴”란 일기 구절이 젊은 철학가의 이기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사르트르는 29년말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글 쓸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나치 이념과 맞서 싸우겠다”는 자신의 말에 보바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도 찬성한다. 그러나 양치기같은 보통사람들은 과연 이 전쟁에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란 질문을 던져오자 당혹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죽을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적처럼 죽지 않을 거란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 당시 사르트르는 60세쯤에 영원불멸할 걸작을 발표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사르트르는 40년 7월경 독일군에 포로로 잡혔다가 이듬해 3월 수용소에서 풀려났다. 이후 그는 파리로 무사히 되돌아와 종전때까지 비교적 안전한 환경 속에서 연구와 저술을 계속했다. 2차대전 동안 사르트르는 적극적인 항독활동을 벌이지 않았고, 이 부분때문에 오랫동안 강한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양녀 엘카임-사르트르는 일기책 서문에서 “아버지는 여성들에만 둘러싸여 학창시절을 보냈다. 따라서 전쟁기에 요구되는 남성적인 용기를 나타내기가 쉽지 않았고,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럽 통합의 아버지 장 모네의 일생

유럽통합의 아버지 장 모네의 일생을 다룬 「장 모네; 인터디펜던스(Interdependence)의 첫번째 정치인」이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 출간됐다.

모네의 보좌관이었던 프랑스계 영국 언론인 프랑수아 뒤센이 쓴 이 책은 권력의 뒤편에서 조용히 혁명을 이룩했던 ‘큰 정치가’ 모네의 업적을 재인식시킨 명저로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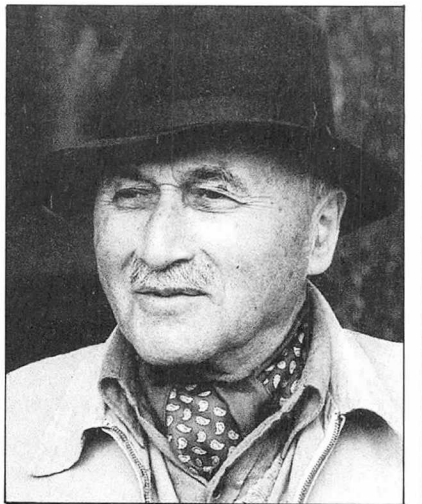
사실 모네는 정치적 비중에 비해 대중적 관심을 크게 끌지는 못했다. 생존시 그는 워낙 개인적으로 조용한 성품이었던 데다가 대중연설 기술도 거의 썩병 수준이어서 막후에서 말

하기를 더 즐겼기 때문이다.

프랑스 코낙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모네는 10때 영국·캐나다에서 영어와 무역업을 공부하면서 일찍이 국제 감각을 익혔다. 1차대전때는 통상장관의 눈에 들어 런던으로 파견돼 영·불간의 교역업무 맡았고, 종전 직후 국가연맹(League of Nations)의 발족을 위해 실무책임자로 활동했다.

2차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금융가로 실력을 발휘하던 모네는 40년 히틀러가 프랑스를 무력점령하자 다시 한번 국제정치가로 변신한다. 워싱턴을 방문한 그는 전쟁이 빨리 끝나기 위해선 미국의 참전이 필수적이란 점을 역설하는 한편, 미국정부가 전함 및 비행기 제조 계획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제학자 케인즈는 “워싱턴에서의 모네의 활동이 3차대전을 1년쯤 단축시켰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종전 후 그는 프랑스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른바 ‘모네 플랜’을 주도, 프랑스가 농경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40~50년대에 모네가 심혈을 기울인 사업은 유럽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었다.



유럽통합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장 모네.

에당초 그는 프랑스와 독일간의 오랜 갈등을 끝내기 위한 수단으로 양국의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주장했다. 수세기에 걸친 두 나라의 전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애꿎게 사망했던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

그의 구상은 프랑스와 독일에만 그치지 않고 유럽전역으로 확산됐으며, 54년 드디어 유럽공동시장을 형성하는데 성공한다. 모네의 이런 노력들은 4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

속 이어져 결국 유럽통합이란 결실을 맺게 됐다.

저자 뒤센은 “모네 보좌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나는 그와 늘 자유로운 토론을 벌였다. 그는 파리의 교외와 스위스 알프스 등 곳곳에서 함께 산책하는 도중 자신의 진보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털어놓곤 했다. 모네와의 대화는 마치 지적인 펀치백 운동 같았다”고 회상하고 있다.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모네와 드골 대통령간의 갈등. 모네는 드골을 고리타분한 봉건주의자로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며 결끄러운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는 69년 드골이 퇴임한 후 정식으로 정계에 진출하리란 예상을 깨고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유럽통합 작업에만 묵묵히 몰두, 겸손함과 자제심을 증명했다.

「타임」지는 최근 기사에서 모네를 “20세기 유럽사를 바꾼 인물”로 높이 평가하고, 뒤센의 저서를 통해 그의 위상이 새삼 부각됐다고 평했다.

베를린의 문학산실로 자리한 독서모임

작가와 출판인 그리고 독자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작품을 낭독하기도 하는 ‘부흐헨들러켈러’ (Buchhändlerkeller, 서적상인의 지하실이라는 뜻이지만 고유명사로 사용)는 역사와 미래를 함께 지닌 문학장려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베를린의 문학적 삶을 대변해 주는 곳으로 유명하다.

매주 목요일 저녁 베를린 서부의 위성도시인 샤를로텐부르크에 위치한 카르멘가를 걷다 보면, 즐비한 음식점과 주점들 사이로 매우 특별한 불빛이 흘러 나오는 곳을 발견할 수 있다. ‘지하실’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과는 달리 1층에 위치한 부흐헨들러켈러의 안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한쪽에는 간단한 주류를 판매하는 판매대가,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판매를 위한 책들이 서가에 진열되어 있다. 그 안의 널찍한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은 양털방석이 깔린 폭신한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주의깊게 경청하거나 때론 웃음을 터뜨린다.

베를린에는 이와 같은 모임을 개최하고 있

는 서점들과 전문적인 문학기관들이 여러곳에 위치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부흐헨들러켈러의 창설멤버이자 현재 예술협회의 문학비평가로 활동중이며 그 자신 서점을 경영하기도



‘부흐헨들러켈러’에서 한스 크리스토프의 작품 낭독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독자들.

하는 헤어바흐(K.P. Herbach)씨의 문학에 향한 각별한 열정과 노력은 카르멘가를 베를린 문학의 중심지로 일구어낼 수 있었다.

1951년에 ‘베를린 청소년 서적단체회의’ 지하실에서 맨 처음 독서모임이 있던 후 정착하게 된 ‘부흐헨들러켈러’는 헤어바흐씨를 비롯한 몇몇 뜻있는 사람에 의해서 비롯됐다.

지금은 독일의 문호인 페터 한트케, 브루노 폭스, 위르겐 베커, 엑른스트 안들 등이 당시 초기모임의 단골손님들. 70년대의 학생운동과 결부되어 격렬한 토론의 장이 되기도 했던 부흐헨들러켈러에서는 모든 장르의 문학작품이 발표된다. 물론 참가자격에 대한 제한도 없다. 작가들은 이곳에 모인 다른 작가들과 진행중인 작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기도 한다. 또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오래 전부터 이미 크로스토프 하인, 엘케 에르프, 라이어 키르쉬 등과 같은 동독 작가들도 참가해 왔다.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을 함께 수용, 중간자 역할까지 맡아왔던 부흐헨들러켈러에서는 지난 1983년 우베손손의 마지막 작품낭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동서독의 정신적인 화합과 동질성의 회복은 대중과 합일체를 이룰 때야 비로소 가능할 수 있음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이 모임의 단골손님인 페터 베버, 부르크하르트슈판넨, 랄프 로트만 등과 같은 독일의

문호들 외에도 코니 팔멘, 이레네 디체 등은 이 모임에서 발굴돼 문단의 주목을 받은 경우이다.

자신의 인생을 오로지 문학에만 바쳐온 창

립자 헤어바흐씨는 30년이 넘도록 부흐헨들러켈러에서의 모임을 위해 순수 프로그램을 주관해오고 있다. 물론 그가 쏟는 노력의 주안점은 독일 문학의 부흥을 위해서이다. 비록 넉넉지 못한 재정상태로 인해 소위 ‘구걸편지’를 쓰고 있다지만 아직도 청년과 같은 열정으로 가득찬 이 모임은 곧 ‘베를린 문학의 양심’인 셈이다.

시대를 풍미한 두 여성의 편지글

독일의 여성철학자 한나 아렌트와 미국의 저명한 여류소설가 메리 매카시가 30여년 동안 나누었던 편지들을 모은 「친구사이; 한나 아렌트와 메리 매카시의 편지들 1949-1975」(하코트 브레이크스 & 컴퍼니)가 최근 미국에서 출간됐다. 한시대를 풍미했던 두 여류 저명인사의 편지 속에는 유명 작가·철학자·정치인과의 뒷모습,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개인적 견해, 사생활 등이 숨김없이 담겨 있어 학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렌트와 매카시가 처음 만난 것은 1945년 뉴욕의 한 파티장에서였다. 여기서 두 사람은 히틀러에 대한 평가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매카시가 히틀러를 불쌍한 인간으로 보

고 있는데 대해, 유태인이며 강제수용소에서 생활한 적도 있는 아렌트가 분개를 나타낸 것이다. 아렌트와 매카시는 토론을 통해 의외로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곧 뜻이 맞아 편지를 교환하게 된다. 두 사람의 우정은 아렌트가 사망하기 전까지 26년간 변함없이 계속됐다.

편지에서 가장 흥미있는 부분은 유명인사들에 대한 평가. 매카시는 1952년 닉슨 부통령 당선에 대해 “이것이 대중사회의 현실”이라고 썼고, 60년 소련 지도자 흐루시초프는 “인간이 아니라 만화같은 인물”로 불렀다. 매카시는 이밖에도 남편 에드먼드 윌슨과의 결혼, 보든 브로드위터와의 스캔들 및 재혼과정에서 겪었던 고통 등을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아렌트도 70년 편지에서 남편을 잃고난 뒤 혼자 남겨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소설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에 대해선 “첸체하는 태도가 역겹다”고 적어 눈길을 끈다.

그밖에 편지에는 아스퍼스, 하이데거, 이사야 벌린, 사르트르, 나탈리 사르트, 알베르트 모라비아 등 서구 문화·학계인사들이 총출동한다.

「뉴욕 타임즈」북리뷰지는 “서로 다른 기질과 과거를 가진 두 여자가 어떻게 이처럼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었는지 놀란다. 아마도 달랐기 때문에 서로의 철학적, 감정적 빈 공간을 메워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1년분(22호분)
30,000원
* 반년분(11호분)
16,000원